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 개신교박물관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Christian Museums

: with a special focus to Protestant museums

신 광 철

(한국, 한신대학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christian museum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 on the basis of the former result. Firstly, I arranged the present situation of protestant museums as a basic work to secure the importance of religious museums. And I will continue researches about catholic, buddhist, folk museums etc.

A christian museum is important in that it is a storehouse of precious data accumulated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However, interest in its value has not been given sufficiently so far despite its importance. Most christian museums are petty in their scale and management. When we consider the historical weight of christian history in the modern Korea, the status of christian museums have to be improved from now on.

I classified the types of christian museums in Korea into christian history museum, christian art museum, biblical archeology museum, local churches' history museum, christian figures museum(memorials of famous christians), and mission school(colleges) museums on the basis of contents they possess. It can be said that the representative types among these are christian history museum and biblical archeology museum.

※Key words: religious museums, christian history museum, christian art museum, biblical archeology museum, local churches' history museum, christian figures museum

종교박물관,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예술박물관, 성서고고학박물관, 지역교회역사박물관, 기독교인물박물관

I. 머리말

최근 들어 종교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2년 3월 26일 열린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¹⁾와 2003년 12월 15일 열린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²⁾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4년 12월 20일 개최 예정인 심포지움 ‘종교박물관의 발전방향’도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³⁾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서 윤이흠 교수는 모든 나라의 문화재의 절대다수가 종교문화재라는 점, 21세기의 세계문화상황이 종교문화박물관을 절실하게 요청한다는 점 등을 통해 종교박물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⁴⁾ 그는 또한 종교박물관이 (종교 간의) 실천적 교류관계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종교상황을 개방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종합적 종교박물관을 창건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⁵⁾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교박물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충분하게 제기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종교박물관이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는

1)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문화관광부·문화재청·한국박물관협회가 후원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였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홍선 스님이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덕성여대 최성은 교수가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송인범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이미경 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정재훈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발표된 논문과 토론문은 《聖寶》 제4호(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2)에 게재되었다.

2)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는 문화관광부가 후원했으며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였다. 윤이흠(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한국 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심원 스님이 <불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김홍수(목원대) 교수가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조인숙 다리건축 대표가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양은용(원광대) 교수, 정우택(동국대) 교수, 서정민(연세대) 교수, 최준오(안산공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 제2회 종교박물관 학술심포지움 ‘종교박물관의 발전방향’에서는 윤이흠(서울대) 교수가 <종교박물관의 유형과 그 운영방향>을, 통도사성보박물관 범하 관장이 <통도사박물관의 현황과 운영>을,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장이 <기독교박물관의 운영형태와 전망>을, 서종태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이 <천주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동국대박물관의 이용진 연구관, 필자,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장정란 연구원이 각각 토론을 맡기로 되어 있다.

4) 윤이흠, <한국 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5쪽.

5) 위의 책, 9-10쪽.

현실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에서 ‘종교’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지 못한 점이 보다 중요한 배경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904호)의 박물관 및 박물관자료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모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제2조 “정의” 1항)을 말하며, “‘박물관자료’라 함은 모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제2조 “정의” 3항)를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및 ‘박물관자료’에 대한 정의에는 ‘종교’ 영역이 구성 범주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재의 상당수가 ‘종교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홍선 스님의 조사에 따르면, 유형문화재의 경우 전체 2617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보 169점, 보물 865점, 기타 67점 등 1101점이 불교문화재로 약 42%를 점하며, 시·도 지정 문화재는 전체 7764점 가운데 유형문화재 917점을 비롯한 1488점이 불교문화재로 33%를 차지한다.⁶⁾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종교문화재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며, 박물관에 대한 법적 규정에 ‘종교’ 영역이 중요한 구성 범주의 하나로 제시되어야 하는 준거가 된다. 박물관에 대한 법적 규정에 ‘종교’ 영역이 포함되면, 박물관 전문직(학예사)에 대한 종교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성 또한 확대될 것이다.⁷⁾

필자는 종교박물관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종교박물관의 현황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그 첫 작업으로 기독교박물관, 그 중에서도 개신교박물관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간단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⁸⁾ 본 연구에 이어, 가톨릭(천주교)박물관, 불교박물관, 민속박물관, 민족종교박물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박물관의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홍수 교수의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⁹⁾ 김홍수 교수는 기독교박물관을 ‘경영 주체’에

6) 홍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성보》 제4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2, 89쪽.

7) 현재 준학예사 시험 과목에 역사학, 민속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 등은 선택과목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학(또는 종교사) 과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물관 정의(定義)에 ‘종교’ 영역을 포함시키는 과제는 그래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8)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Christianity)는 가톨릭(Catholic: 천주교), 정교회(Orthodox Church), 개신교(Protestant)의 총칭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따라 대학박물관, 교회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 구분하였다. 대학박물관으로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기독교자료 전시실),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기독교선교 자료실),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박물관(선교박물관) 등이, 교회박물관으로는 절두산 순교기념박물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평강 성서유물박물관(서울 구로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국제성서박물관(주안감리교회), 한국순교자기념관, 한국기독교미술관(충남 논산군 벌곡면, 대전 선화감리교회 수양관) 등이, 사립박물관으로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지적박물관, 성결교회 역사자료관(계획중) 등이 각각 다루어졌다.

기독교박물관을 경영 주체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미술관의 구분”을 따른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는 박물관의 유형을 국립박물관(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공립박물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사립박물관(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대학박물관(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영 주체에 따른 기독교박물관의 유형화는 기독교박물관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박물관 운영 형태를 명료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필자는 각 기독교박물관의 소장 콘텐츠의 성격에 따른 분류, 즉 내용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예술박물관, 성서(고고학)박물관, 개교회 및 지역교회 역사박물관(사료관),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 등으로 유형화하는 하는 한편, 여기에 기독교학교(대학)박물관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역사박물관은 기독교사 관련 문화재 및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박물관을 말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용인 순교자기념관, 기독교선교기념관(양화진 선교사 묘지), 동산의료원박물관, 애양원역사박물관, 지적박물관 등이 있으며, 지리

9) 김홍수,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박물관협회, 2003, 23-29쪽. 김홍수 교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은 서정민 교수가 담당하였다.(서정민,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찬>, 같은 책, 30-31쪽.)

산기독교유적지 보전본부와 바울학회 등에 의해서도 기독교박물관 건립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과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이 종합적인 성격의 기독교박물관이라면,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 기독교박물관이다. 용인 순교자기념관은 순교역사 관련 박물관이며, 동산의 료원박물관과 애양원역사박물관은 의료선교 관련 박물관이다. 지적박물관은 전문적인 기독교박물관은 아니지만, 개교회사 관련 박물관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독교선교기념관(양화진 선교사 묘지)은 실질적으로 박물관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계획중이거나 설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사례를 기타 항목에서 짚막하게 다루고자 한다.

1.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¹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기독교문사 한영제 장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한국기독교 역사와 관계되는 각종 도서·신문·잡지·문서·엽서·사진 등 1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기독교문사는 대표적인 문서선교기관 가운데 하나로서, 1955년 5월 12일 정문사로 출발하였고, 1956년 12월 5일 기독교문사로 출판등록을 하였다. 기독교문사와 한영제 장로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까지는 세 가지 활동이 밑거름이 되었다. 첫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번지에 ‘이천한나원’을 준공하였다(1985년 5월). 둘째, 한국기독교 1백주년을 기념하는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완간하였다. 셋째, 한국기독교 문화선교 연구기관으로 ‘향산기독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이천한나원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공간 확보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기독교대백과사전》 발간은 한국기독교사 관련 사료 및 문헌 수집의 원천이 되었고, 향산기독교문화연구원은 박물관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활동이 결실을 맺기에 이르러서, 2001년 11월 30일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준공 및 개관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기획전시, 교육, 박물관문화 증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전시의 경우, 제1회 전시회(2001. 11. 30-2002. 2. 28)가 “한글과 기독교: 기독교 잠든 한글을 깨우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는 개화기 기독교 고문헌 전시회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제2회 전시회(2002. 5. 20-2002. 9. 30)는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을 주제로 북한교회 유물전을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제3회 전시회(2003. 4. 1-2003. 10. 31)는 “한국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열렸다. 교육활동으로는, 2002년 6월 17일 고성현 목사(거제 광림교회 담임)의 강연 “북한의 한

10) <http://kchmuseum.org>

국교회사 이해”와 2002년 7월 15일 박종구 목사(월간 목회 발행인)의 강연 “북한 선교현황 전망”이 있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또한 기관지 《복음과 역사의 향기》를 발간하는 등¹¹⁾, 박물관문화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은 전남 순천 매곡동에 자리하고 있다. ‘매산뜰’이라고도 불리는 매곡동 자리에는 순천중앙교회, 매산학교, 순천기독교진료소, 순천성서신학원 등의 유적들이 있다. 이 곳 순천기독교진료소 2층과 3층에 2004년 1월말 등대선교회(회장:이향근 목사)에 의해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이 들어섰다. 소장 사진만 3만점이 넘고, 한국 선교 연표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각종 생활용품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에는 특히 고종황제가 선교사에게 하사한 부채, 선교비 모금차 제작한 알렌의 달력, 레이놀즈 선교사의 성경주해 및 설교노트를 비롯하여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침대, 책상, 타자기, 주방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선교생활사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 뿐만 아니라, 3만여 점의 생생한 슬라이드 필름과 선교사들의 선교보고서, 편지 등이 원문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기독교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¹²⁾

이 곳 순천에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이 자리하게 된 데에는 교계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광양-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지자체는 이 일대를 잇는 ‘한국 기독교 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정책 입안 및 예산 배정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순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기독교 성지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¹³⁾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의 개관에 이르기까지는 ‘등대선교회’의 지원과 함께 여러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¹⁴⁾ 박물관 개관의 산파역을 했던 안기창 목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등대선교회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11) 표현모,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복음과 역사의 향기’ 발간〉, 《기독교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12) 강석근, 〈등대선교회 박형규 간사〉, 《기독교신문》, 2004년 2월 24일자.

13) 정재영, 〈미리 가보는 전남동부권 기독교 성지 ① 순천: 순교자 산실, 교회와 깊은 일체감. 매산뜰엔 옛 선교 향취 듬뿍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지역 명소로 거듭 나〉, 《기독교신문》, 2004년 2월 24일자.

14)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개관을 주도한 등대선교회는 배유지선교사의 외손이며 인돈 박사의 3남인 인후 선교사가 1954년 순천선교부에 부임한 이후 1970년에 설립하여, 진주와 목포를 비롯해 무교회 도서지역 선교를 주도했던 단체이다.

3년 9개월의 산고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¹⁵⁾ 이 밖에도, 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모금은 물론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교회를 찾아다니는 등, 발로 뛰며 애를 썼던 박형규 집사를 비롯해, 전주대 주명준 교수, 호신대 차종순 교수의 자문, 박물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고(故) 인휴 선교사의 부인이자 기독교진료소 원장인 인애자(Mrs. Hugh Linton) 선교사와 인돈 가문의 4대 선교사인 인요한(Dr. John Linton) 박사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박물관 탄생의 원천을 이루었다.

3.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교회에 위치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 고장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바르게 기리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은 2개의 전시실과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암리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경기도와 전국의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암리교회 일원에는 이 밖에도 23인 순국묘지, 23인 상징조형물, 3.1운동순국기념탑 등이 있어 그 자체로 박물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용인 순교자기념관

경기도 용인시 추계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순교자기념관은 순교 역사와 순교 기독교인 관련 특화 기념관이다. 기념관 입구에 있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참수 직전에 있는 토머스 목사의 순교 역사를 묘사한 대형 그림과 함께 해초 김학수 화백이 기증한 역사화들이 있어 순교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2층 예배실에는 1930년대 이전 개화기 교회들과 우리 사회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있으며, 3층에는 순교자들의 초상화와 성경, 편지 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초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적힌 거울이 걸려 있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이밖에도 회의실에 마련된 서가에 교계 관련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고, 성서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시대별 성서가 전시되어 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순교자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의 봉헌이 밑거름이 되었다. 영락교회 정이숙 권사가 1986년 용인시 추계리 10만여 평의 부지를 헌납했고, 1989년에 재미 실업가 한규빈씨가 1백만달러(당시 7억

15) 김보현,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개관>, 《기독교공보》 2449호, 2004년 2월 7일자.

여원)를 선뜻 내놓는 등 많은 신자들의 헌금이 이어져 기념관 건축을 할 수 있었다.

5. 동산의료원박물관

동산의료원박물관은 1999년 10월 계명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문을 열었다. 동산의료원박물관은 대구시 유형문화재 24-26호로 지정된 선교사 사택 세 동에 선교박물관, 의료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을 각각 구축하였다.¹⁶⁾ 세 개의 하위 박물관에서는 주제별로 자료를 모아 전시하고 있어서, 100여 년 간의 대구 선교역사, 의료역사, 교육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선교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위츠관’은 1910년경에 지어졌으며, 한국식과 서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대구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된 1906년 이후의 선교역사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선교박물관에 전시된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1900년대 초에 발행된 각종 성경과 1927년 발행된 성경사전이 있다. 의료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캠니스관’은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진 붉은 벽돌의 2층 주택이다. 2층에는 침대와 카펫, TV, 수납장 등을 그대로 두어 이곳에 머물렀던 선교사의 주거양식과 생활양식을 살펴 볼 수 있다.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블레이관’은 1층에 ‘교육역사관’이 2층에 ‘대구 3.1 독립운동 역사관’이 각각 있다.¹⁷⁾

6. 애양원역사박물관¹⁸⁾

애양원역사박물관은 애양원과 관련된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순천 애양원의 역사는 190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한센병 치료 병원이 1928년에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비롯되었다. 병원 건물은 현대식 병원이 세워진 후 양로원으로 사용되다가, 그 후 현대식 양로원이 세워진 후부터는 방치 상태에 있었던 것을 개보수해서 애양원역사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당시에 썼던 의료기구들, 역대 원장 및 환우들의 생활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애양원역사박물관은 최근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16) 1999년 병원 개원 1백주년을 맞아 1차로 선교박물관, 의료박물관을 개원한 후, 2001년 2월 교육·역사박물관, 2002년 3월 3·1운동 역사관을 차례로 개관하였다.

17) 장창일, <christi@n/박물관기행/계명대학 동산의료원 박물관>, 《기독교공보》 2391호, 2002년 11월 23일자.

18) <http://www.aeyangwon.org>

전남 여수시가 손양원목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애양원 일대를 포함, 관련 유적지에 대한 성지화 추진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¹⁹⁾ 전남 여수시는 울촌면 신흥리 일대의 손양원 목사 기념관과 묘지, 애양원병원, 역사박물관, 교회는 물론 한국전쟁 중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했던 순교지 등을 사랑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 3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한 바 있다.²⁰⁾

7. 지적박물관

충북 제천 교외에 자리한 ‘우물지적향토지 박물관’은 전문적인 기독교박물관은 아니다. 이 박물관은 감리교회의 리진호 장로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으로, 제천시 양화리에 있는 폐교(초등학교)를 개조하여 1999년 10월 16일에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상당수의 한국교회의 백년사를 수집하고 있으며, 성서전시실에 한국 성경 600종, 외국성경 100권을 소장하고 있다.²¹⁾ 지적박물관은 지적, 향토지, 백년사, 기독교 등 주제별로 네 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전시실에는 개교회사 600권, 역사문헌 100권이 소장되어 있다.²²⁾

8. 계획 · 구상중인 기독교역사박물관

이상의 기독교박물관 외에도 계획 · 구상중인 박물관이 몇 개 있다. 지리산에 남겨진 기독교 유적지를 되살리고 보살피 후대에 전하기 위해 2004년 4월 10일 출범한 ‘지리산기독교유적지보전본부’(회장 박승준 목사)²³⁾는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역사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리산기독교유적지보전사업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여수 애양원과 순천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을 잇는 순례여행 코스의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²⁴⁾

충남 서천 지역에서도 또 하나의 기독교박물관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2003년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 고증을 받은 바 있는 마량포구에 190

19) 신동하, <여수시 애양원 일대 성지화 추진>, 《기독교공보》 2451호, 2004년 2월 21일자.

20) 박강섭, <박강섭의 길 스케치' 기독교 문화유적 새 명소>, 《국민일보》, 2004년 3월 25일자.

21) 백수복,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일고>, 《활천》, 2000년 11월호.

22) 리진호, <향토박물관을 찾아서: 충북 제천시 지적박물관>, 《지방행정》 Vol. 50 No. 572,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1.

23) <http://www.km1895.or.kr>

24) 이상훈, <기독교명소순례/ 지리산 노고단 · 왕시루봉의 기독교 선교유적지>, 《기독교공보》 2453호, 2004년 3월 6일자.

역원을 들여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2006년 12월까지 이곳에 상징탑과 종, 명상센터, 기독교역사박물관 등을 건립키로 하고 최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²⁵⁾

한편, 바울학회(회장 정용두 목사)에 의해 한국선교역사박물관 건립 구상이 시도되고 있다. 바울학회는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원용 목사)와 공동으로 한국선교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²⁶⁾ 바울학회는 2000년에도 경기도 용인 근처에 바울선교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²⁷⁾

Ⅲ. 기독교 예술박물관

기독교예술박물관으로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미술관이 유일하다. 예술이 종교문화 이해의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기독교음악박물관(예, 찬송가박물관), 기독교영화박물관, 기독교복식박물관 등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기독교미술관은 대전선화감리교회(이기복 목사)가 한국개신교전래 제115년을 기념하여 2000년 6월 21일에 선화교회의 수양관 내에 설치하여 개관하였다.²⁸⁾ 한국기독교미술관의 이사장인 이기복牧사는 “국내 기독교 미술작품을 모아 기독교의 이해를 돕고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품들을 전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⁹⁾

Ⅳ. 성서(고고학)박물관

성서(고고학)박물관은 기독교역사박물관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의 기독교박물관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평강성서유물박물관, 국제성서박물관,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한국성경유물관,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한국성서고고학박물관이 있다.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

25) 박강섭, <박강섭의 길 스케치' 기독교 문화유적 새 명소>, 《국민일보》, 2004년 3월 25일자.

26) 《종교신문》 2004년 6월 1일자 종교계 소식 참조.

27) 김무정, <바울학회, 올해 사업·출판 계획 확정>, 《국민일보》, 2000년 1월 25일자.

28) 백수복,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일고>, 《활천》, 2000년 11월호.

29) 이지현, <한국기독교미술관 첫 개관>, 《국민일보》, 2000년 6월 21일자.

관의 경우, 대학박물관이지만 성서고고학박물관으로 특화된 박물관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킨다.

1. 평강성서유물박물관³⁰⁾

서울 구로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교육관에 설치된 평강성서유물박물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 회복과 영생의 길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기, 등잔, 도장, 순례자의 기념표, 이집트 장례유물, 이집트 장신구, 신상, 청동거울, 등잔받침대, 무기, 화장 도구, 유리그릇, 귀금속, 기록물, 향아리 손잡이 기록, 동전 등을 소장하고 있다.

평강성서유물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문명의 진귀한 유물 2,0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평강성서유물박물관은 미국의 고고학자 케네스 바인(전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대 총장)박사가 평생동안 발굴, 수집해 온 유물을 이 교회 박 아브라함 (72)목사에게 기증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었다. 이곳의 진품 유물들로는 기원전 2000년경의 수메르 토판문서에서 부터 미케네와 블레셋족의 토기류, 기원전 10세기의 이집트의 미이라, 로마시대의 장신구, 고대 이스라엘의 무기류와 비잔틴 제국의 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³¹⁾

2. 국제성서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주안감리교회 교육관 5층에 위치한 국제성서박물관은 1995년 4월 30일 개관하였다. 전시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을 갖추었다. 미국의 유명한 성서 수집가 웨이커 필드 박사(Dr. David Wakefield)가 전 세계에서 수집하여 기증한 희귀 성서 5,000여권과 성물, 그리고 한경수 감독이 33년간 44개국을 돌며 수집한 성서가 전시되어 있다.

성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성서는 30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약 1만 5천 권 정도로, 이 중에는 구텐베르크 성경(1456년), 그로싸 오디너리아 성경(1462년), 포리그랏 성경(1517년), 루터 성경(1526년), 감독성경(1539년), 제네바성경(1560년), 킹제임스 성경(1611년), 예수성교전서(1887년) 등의 진본이 포함되어 있다.

3.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30) <http://www.apm.or.kr>

31) 《한국일보》, 1998년 12월 8일자.

경기도 화성시 협성대학교 내에 소재한 성서고고학박물관은 유물을 통해 성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협성대학교 본관 7층에 있으며, 모두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토기류, 제2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제3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기록문화와 유대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성서고고학적 유물들과 유대교 유물 중 총 297점이 소장되어 있다. 기원전 3천-서기 6백 년 사이의 성서고고학 유물과 17-19세기에 걸친 유대 유물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4.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³²⁾

성서학 문헌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있고,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운영하는 성서학 문헌정보 자료실이다.³³⁾ 이곳에는 전세계 5백개 언어로 된 6백여 종의 현대어 성서와 80여 종의 고대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성서공회에서는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일년에 4천 명에 이른다. ‘성서의 보급 경로’, ‘한글성서 번역 역사’ 등을 주제로 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상당한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서전시실의 자료들은 구약의 사본과 인쇄본, 구약의 고대역, 신약의 사본과 인쇄본, 외국어 역본들, 리말 번역 성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성서교육문화센터에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있으며, 성서학 문헌정보 3만 7천여 권의 단행본과 6백20여 종의 정기간행물, 3백80여 권의 고본성서, 4백70여 종의 CD롬 등이 구비되어 있다.

5. 한국성경유물관³⁴⁾

경기도 과천시 사랑의 교회(김남철 목사)에 위치한 한국성경유물관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경 유물들을 복제하여 한 자리에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기업(삼성전자)과 교회(과천 사랑의 교회)의 합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⁵⁾ 사랑의 교회와 삼성이 손을 잡게 된 것은 교회가 성경유물의

32) <http://www.bskorea.or.kr>

33) 임원진, <Christi@n/박물관기행/세계적 성경박물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기독교포》 2382호, 2002년 9월 14일자.

34) <http://www.kbr.or.kr>

추가 복원과 평창 교육 전시관의 건립 재원을 마련키 위해 여러 기업체 인터넷 사이트의 후원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랑의 교회에 지원키로 했으며, 기부금 지급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 한국성서고고학박물관

한국성서고고학박물관은 한국성서고고학회(회장 최교훈 목사)에 의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교회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을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³⁶⁾

V. 개교회 및 지역교회 역사박물관(사료관)

최근,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역사관 내지는 사료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00주년을 넘긴 역사 깊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의 모교회들이 조성하고 있는 자료실은 나름대로 박물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⁷⁾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새문안교회 역사관과 전주서문교회 역사자료실이다. 이 밖에도, 백령기독교역사관(중화교회 기념관), 남전교회 1백주년 기념관 내 역사자료실³⁸⁾ 등도 중요한 사료관이다.

1. 새문안교회 역사관³⁹⁾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이자 ‘어머니교회’인 새문안교회는 2004년 3월 6일 교회 내 언더우드기념관에 교회사료관을 개관하였다. 교회사료관은 새문안교회의 상징과 역사, 활동, 역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세사와 교회의 역사를 한

35) 유연옥, <기업과 교회 손잡고 성경유물박물관 개관>, 《국민일보》, 2000년 6월 15일자.

36) <한국성서고고학박물관 추진-추진위 결성, 이사장 원용국 교수 선임>, 《기독교보》, 2003년 8월 12일자.

37) 서정민, 앞의 책, 31쪽.

38) 김보현, <특별기획/ KTX개통, 기독교 유적지 가는 길 (下)- 호남선>, 《기독교공보》 2459호, 2004년 4월 17일자.

39) <http://www.saemoonan.org/history/>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로 꾸며졌다.⁴⁰⁾ 새문안교회 사료관에는 당회록과 교우문답책 등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었다.⁴¹⁾

2. 전주서문교회 역사자료실

2000년 7월 2일 개관한 전주 서문교회 역사자료 전시실은 서문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역사 전시실이었다. 여기에는 1900년 군산 유대모 의사의 선교선 돛단배의 사진을 비롯하여 60점이 전시되었다.⁴²⁾

3. 백령기독교역사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중화동교회(담임 전용류 목사)의 기념관으로서, 옹진군에서 3억원을 투입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와 인천노회 및 백령시찰회의 후원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념관에는 초대교회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들의 얼굴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당시 그들이 전도하던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재현해놓았다.

VI.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형의 박물관이다. 기독교인물박물관은 대체로 기념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언더우드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관, 이기풍선교기념관, 이기풍 순교기념관, 남궁억기념관,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 한경직목사 사이버기념관,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의 근대민족운동과 기독교가 관련된 주제의 전시물이나 자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도산 안창호, 조만식, 주기철 등 기독교 역사 인물의 컬렉션이나 기념관 등도 범 기독교박물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⁴³⁾

40) 전재우, 〈새문안교회 사료관 6일 개관〉, 《국민일보》, 2004년 3월 28일자.

41) 임원진, 〈Christi@n/ 박물관기행/ 새문안교회 사료관〉, 《기독교공보》 2410호, 2003년 4월 12일자.

42) 백수복,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일고〉, 《활천》, 2000년 11월호.

43) 서정민, 앞의 책, 31쪽.

1. 언더우드가 기념관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10월 28일 문을 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자녀들이 기거하던 사택을 개조해 만든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언더우드 가족의 보금자리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신앙생활사를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⁴⁴⁾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품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언더우드 타자기(Underwood Typewriter)로서, 이는 언더우드의 형(John. T. 언더우드)이 설립한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언더우드 가족의 대표적인 사진과 함께 원일한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사진들도 전시돼 있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족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유물 전시개념의 박물관이나 기념관보다는 당시의 생활 상황 재현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 실내를 꾸미고 고 사진, 도서, 유물을 디스플레이하였으며, 앞으로 문헌자료소장과 연구를 겸한 언더우드연구소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⁴⁵⁾

2. 유관순열사 기념관, 유관순기념매봉교회 전시실⁴⁶⁾

유관순열사 사적지 내에는 유관순열사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한 유관순열사 기념관이 있다. 열사의 출생에서 옥중순국까지의 열사일대기를 전시물과 함께 영상물로 꾸며져 있으며, 열사가 벽에 서서 고문받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벽관체험코너와 태극기를 직접 찍어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한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유관순열사 사적지 일원에는 이 밖에도 추모각(영정), 동상, 초혼묘, 봉화지, 생가 등이 있다.

유관순열사 사적지 인근에는 유관순기념매봉교회가 있는데, 이 곳 전시실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절에 관한 사진 자료 및 운양호 사건 이후부터 해방까지 약간의 사진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교회와 전시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지는 않으며, 미리 연락이 되어야 견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남궁억기념관

44) 김성진, <Christi@n/박물관/언더우드가 박물관>, 《기독교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45) 서정민, 앞의 책, 31쪽.

46) <http://www.maebong.or.kr>

감리교 동부연회와 홍천군, 한서교회가 지난 1998년부터 함께 추진해 온 ‘한서 남궁역 선생 기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남궁역기념관은 기념관과 옛 예배당으로 구성됐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친필서예본 4점과 낙관인, 무궁화 십자당 사건 재판기록, 남궁역 선생이 관여했던 독립신문 영인본과 황성신문 창간호, 무궁화 자수 등 24종의 유품과 사료들이 전시된다. 남궁역 선생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찬송가 371장) 같은 애국적 찬송가를 지어 널리 부르게 하다 구속됐던 1933년의 무궁화 십자당 사건 당시 취조당하던 장면을 디오라마 형태로 볼 수 있다.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예배당에서는 선생이 직접 작사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과 ‘주일학교가’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시 예배모습을 재현한 그림과 미니어처 등을 볼 수 있다.

4. 이기풍선교기념관, 이기풍순교기념관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선교기념관⁴⁷⁾은 최초의 장로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복음선교 및 일체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신앙심과 애국정신을 전승하고자 세운 기념관으로서, 사료관에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의 순교지인 전남 여수시 금어도에는 이기풍순교기념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전남 여수 우학리교회(조강석 목사)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을 설립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학리교회는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을 이기풍 목사 시무 당시의 교회당 모습으로 건축키로 했다.

5.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⁴⁸⁾

손양원목사 순교 기념관은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애양원의 역대 원장 및 손양원목사 관련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국 사진 선교센터 대표 신윤식 집사가 촬영한 ‘예수의 생애’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손양원목사 삼부자 생애 사진과 광주 양홍렬전도사가 그린 삼부자 생애 그림 그리고 손목사 삼부자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6. 한경직목사 사이버기념관⁴⁹⁾

47) <http://www.leekipoong.org>

48) <http://www.aeyangwon.org>

49) <http://www.revhan.net>

지난 2001년 12월 29일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환경직목사 사이버기념관’을 개관하였다. 환경직 목사 사이버기념관은 영락교회 인터넷팀이 중심이 돼 8개월 간 기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사이버기념관은 목회자로서의 한목사의 일생을 반추해볼 수 있는 ‘발자취’, 온라인상의 작은 박물관인 ‘기념관’, 장례예배와 추모 1주기 행사 자료를 모아둔 ‘추모관’, 한목사의 설교 자료와 동영상, 논문 등을 모아둔 ‘자료실’, 한목사가 수상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탬플턴상’, ‘기념사업회’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⁵⁰⁾

7.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한국 개신교의 발상지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유산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 정동에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구한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북감리교 아서 노블 선교사의 후손들이 고종이 하사한 최초의 공인 태극기 등 한국 관련 문화재들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건립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1900년 덕수궁에 딸린 연회장으로 지어진 한국 최초의 영빈관인 정동의 증명전과 옛 배재학당터에 남아있는 배재학당 동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정동 제일교회 등 세 곳이다.⁵¹⁾

VII. 기독교학교(대학) 박물관

기독교학교박물관은 대학박물관과 중등학교박물관으로 대별된다. 대학박물관 가운데 대표적인 기독교박물관으로는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있다. 이 외에도 전주대학교 박물관의 기독교자료전시실, 한남대학교 박물관의 기독교 선교자료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동은의학박물관’이 있으며, 침례교역사자료실(침례교신학대학 내)도 기념관 형태이지만 박물관적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도 일부 박물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기독교대학 가운데 기독교박물관 건립을 천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천안대⁵²⁾, 충신대⁵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등학교박물관으로는 송의

50) 고세욱, <환경직목사 사이버기념관 개관>, 《국민일보》, 2001년 12월 26일자.

51) 김병철,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건립계획과 구체화 ... 구한말 역사·선교 증언지로 세운다>, 《국민일보》, 2002년 3월 2일자.

역사관,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등이 있다.

1.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

장로교 목사이며 고고학자인 고(故) 김양선(金良善) 선생이 미군정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1948년 4월 20일 서울 남산에 있는 옛 조선신궁(朝鮮神宮)터에 ‘기독교박물관’과 ‘매산고고관’을 개관·운영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박물관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하여 많은 자료가 분실되고 휴관 상태에 놓여 있다가, 1953년 휴전과 동시에 다시 개관되었다. 그 후, 박물관 부지가 국회의사당 신축지로 결정되어 1958년 2월 28일 폐관하고, 유물은 김양선 선생의 자택으로 옮겨 보관하며 새로운 박물관 신축을 계획하던 중, 1967년 7월 21일 소장 자료 3,600여점을 母校인 숭실대학교에 기증하여 1967년 10월 10일 개교기념일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으로 새로 발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한경직기념관으로 옮겨 재개관하였다.

최근 재개관하기 이전의 박물관은 고고자료실, 한국교회사자료실, 실학자료실, 한국독립운동사자료실 등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중요한 유물을 다수 소장해 왔다. 중요 유물로는, 고고자료실의 국보 제 141호로 지정된 다뉴세문경(多紐細文鏡), 국보 제 231호로 지정된 석제청동기제 작용범(石製靑銅器製作鎔范), 실학자료실의 보물 제 883호로 지정된 청동제지구위(靑銅製地球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실의 보물 제 569호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安重根 義士 遺墨) 등이 있다. 이 밖에, 경교의 한국전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돌십자가, 마리아상은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양의현람도 또한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있는 것이 세계 유일본이다. 만주에서 로스 목사가 번역한 ‘예수성교전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2004년 8월 11시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에서 한국기독교박물관(관장:최병현) 신축이전개관식과 함께 ‘매산 김양선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제1회 매산기념강좌’를 개최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였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새 박물관은 1층 ‘기독교역사실’, 2층 ‘숭실역사실’ 및 ‘근대화와민족운동사실’, 3층 ‘고고미술실’ 및 ‘유물전시실’ 등 5개 전시실에 2천5백여 점의 소장품을 나눠 전시하고 있다.⁵⁴⁾

52) 천안대학교 백석기독교박물관의 건립 취지는 기독교와 관련된 유물 및 역사 자료들인 성경, 번역본, 성경시대유물, 교회역사자료 및 유물, 기독교미술, 백석학원 역사물들을 수집·보존·전시하여 학원선교 뿐만 아니라 민족복음화를 도모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53) 이길환, <충신 박물관 건립 본격추진>, 《기독신문》, 2002년 4월 29일자.

2. 전주대학교 박물관 기독교자료전시실

1985년 2월 25일에 개관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향토사 및 기독교 자료 박물관으로 특성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곳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자료전시실에는 초기교회의 결혼증빙문서(結婚證憑文書) 등 중요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호남선교 초기의 발자취’를 주제로 한 기독교자료 특별전(1995. 10. 04 - 1995. 11. 03)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3. 한남대학교 박물관(기독교선교자료실)

1982년 6월 개관한 한남대학교 박물관은 종합전시실, 백제토기 요지실, 백제토기실, 문헌 자료실, 기독교 선교 자료실, 민속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 자료실에는 통과의례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충청지역 역사 문헌들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어 이 지역의 일상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학혁명과 관련된 일부 사료들도 전시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 자료실에는 1892년부터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선교활동,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에 대한 기록 및 자료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수집 전시하였다.

한남대학교 박물관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남 및 호남지역 1세대 목회자였던 고(故) 이창규목사가 소장했던 자료를 전시하는 기독교사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⁵⁵⁾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동은의학박물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동은의학박물관’은 한국근대의료사의 대강, 특히 알렌 선교사에 의한 광혜원 설립과 예비슨에 의한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의학교의 역사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의사(醫史)는 물론 한국 기독교 선교사의 시초와 관계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내에 복원되어 있는 ‘광혜원’은 그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복원건물 자체가 박물관적 기능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부설되어 있는 설립사 관련 전시물,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초기 선교와 전래 관련 자료, 한국 최초 교회사가인 백낙준 컬렉션 등은 그 자체로서 기독교박물관적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다.⁵⁶⁾

54) 이상훈, 〈기독교명소순례/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신축이전 개관〉, 《기독교공보》 2457호, 2004년 4월 3일자.

55) 이상훈, 〈故 이창규목사 소장자료 특별전〉, 《기독교공보》 2343호, 2001년 11월 17일자.

5. 침례교역사자료실

침례교신학대학 내 도서관에 꾸며진 침례교 역사자료실은 편익 선교사의 내한 선교100주년을 기념해서 1998년 2월에 개관하였다. 자료실은 목동전시구역, 침례교역사 전시구역, 간행물 전시구역, 침례교 관련도서구역, 고서 전시구역, 지방회 각 기관 파일함, 스터디 룸 등7개 구역으로 구분되었다.⁵⁷⁾

6. 승의역사관

승의여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30일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한 승의여중고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학교설립자인 사무엘 마펏 선교사, 해방이후 학교재건에 앞장섰던 박현숙 재건이사장, 재건된 승의여중고 첫 교장인 이신덕 선생 등 3명에 대한 흉상제막식을 가졌다. 앞서 승의백년사를 발간하는 한편 승의여중고에 승의역사관을 만들어 일제시대 승의인들의 항일운동을 다룬 신문기사와 교복 등을 전시하였다.

승의역사관에는 50년을 주기로 변화를 거듭해 온 역사 자료들이 시대 구분에 따라 전시돼 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평양시대에는 설립자인 마포삼열 선교사와 초대 교장 배귀례 선생에 관한 자료 및 당시의 학교 건물과 졸업장, 졸업앨범 등이 전시돼 있다. 역사관에는 또 사무엘 휴 마펏이 아버지의 서류에서 발견한, 1930년대에 촬영한 승의여학생들의 사진도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1897년에 설립된 승의학교의 전신인 예수교소학교와 관련된 자료도 전시돼 있어 교회사가들 사이에서는 승의학교의 역사를 6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⁵⁸⁾ 특히, 1913년에 교사와 학생들이 극비리에 결성한 항일비밀결사대 송죽회와 관련된 자료들도 전시돼 있어 승의의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유관순 기념관 2층에 유관순 전시관이 마련되어있다. 이곳에는 유관순열사의 건국훈장 독립장, 명예졸업장, 호적, 수형기록표, 재판기록 등이 전시되고 있다.

56) 서정민, 앞의 책, 30-31쪽.

57) 백수복,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일고>, 《활천》, 2000년 11월호.

58) 김성진, <Christi@n/박물관/승의역사관>, 《기독교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VIII.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 기독교박물관, 특히 개신교박물관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근대 한국사의 소중한 자료의 수장처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게 제기되지 않는 못하였다. 대다수의 기독교박물관들이 지극히 영세한 범위 내에서 수집·전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사가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제할 때, 기독교박물관의 위상은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 기독교박물관의 유형을 박물관이 주되게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성격을 중심으로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예술박물관, 성서(고고학)박물관, 개교회 및 지역교회 역사박물관(사료관),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 등으로 유형화하는 하는 한편, 여기에 기독교학교(대학)박물관을 덧붙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들 유형 가운데 한국 기독교박물관을 대표하는 유형으로는 기독교역사박물관과 성서(고고학)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사료(자료)의 수장처라는 점에서 기독교역사박물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서(고고학)박물관 또한 역사고고자료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이 강하겠지만, 한국교회의 성서중심주의 전통 또한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기독교예술박물관의 경우, 예술의 위상에 견주어볼 때 기초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교회 및 지역교회 역사박물관(사료관)은 더욱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깊은 역사적 전통을 지닌 교회에서는 간소하게나마 사료관을 마련하여 자료 보관과 전시·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물박물관(기념관) 또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영역이다. 대학박물관의 경우, 스스로의 전통과 관련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특성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경우,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박물관’이나 ‘문익환목사기념관’ 등을 특성화 방향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강석근, <등대선교회 박형규 간사>, 《기독신문》, 2004년 2월 24일자.
- 고세욱, <한경직목사 사이버기념관 개관>, 《국민일보》, 2001년 12월 26일자.
- 김무정, <바울학회, 올해 사업·출판 계획 확정>, 《국민일보》, 2000년 1월 25일자.
- 김병철, <아펜젤러·노블기념박물관 건립계획과 구체화 … 구한말 역사·선교 증언지로 세운다>, 《국민일보》, 2002년 3월 2일자.
- 김보현,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개관>, 《기독교공보》 2449호, 2004년 2월 7일자.
- , <특별기획/ KTX개통, 기독교 유적지 가는 길 (下)- 호남선>, 《기독교공보》 2459호, 2004년 4월 17일자.
- 김성진, <Christi@n/박물관/승의역사관>, 《기독교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 , <Christi@n/박물관/언더우드기념박물관>, 《기독교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 김홍수,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 리진호, <향토박물관을 찾아서: 충북 제천시 지적박물관>, 《지방행정》 Vol. 50 No. 5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 박강섭, <‘박강섭의 길 스케치’ 기독교 문화유적 새 명소>, 《국민일보》, 2004년 3월 25일자.
- 백수복,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일고>, 《활천》, 2000년 11월호.
- 서정민,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찬>,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 신동하, <여수시 애양원 일대 성지화 추진>, 《기독교공보》 2451호, 2004년 2월 21일자.
- 심 원, <불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 유연옥, <기업과 교회 손잡고 성경유물박물관 개관>, 《국민일보》, 2000년 6월 15일자.
- 윤이흠, <한국 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 이길환, <‘충신 박물관’ 건립 본격추진>, 《기독신문》, 2002년 4월 29일자.
- 이상훈, <기독교명소순례/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신축이전 개관>, 《기독교공보》 2457호, 2004년 4월 3일자.
- , <故 이창규목사 소장자료 특별전>, 《기독교공보》 2343호, 2001년 11월 17일자.
- , <기독교명소순례/ 지리산 노고단·왕시루봉의 기독교 선교유적지>, 《기독교공보》 2453호, 2004년 3월 6일자.
- 이지현, <한국기독교미술관 첫 개관>, 《국민일보》, 2000년 6월 21일자.
- 임원진, <Christi@n/ 박물관기행/ 새문안교회 사료관>, 《기독교공보》 2410호, 2003년 4월 12일자.
- , <Christi@n/박물관기행/세계적 성경박물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기독교공보》 2382호, 2002년 9월 14일자.
- 장창일, <christi@n/박물관기행/계명대학 동산의료원 박물관>, 《기독교공보》 2391호, 2002

년 11월 23일자.

전재우, 〈새문안교회 사료관 6일 개관〉, 《국민일보》, 2004년 3월 28일자.

정재영, 〈미리 가보는 전남동부권 기독교 성지 ① 순천: 순교자 산실, 교회와 깊은 일체감. 매산뜰엔 옛 선교 향취 듬뿍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지역 명소로 거듭 나〉, 《기독신문》, 2004년 2월 24일자.

조인숙,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3.

최성은,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聖寶》제4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 2002.

표현모,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복음과 역사의 향기’ 발간〉, 《기독공보》 2437호, 2003년 11월 8일자.

홍 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聖寶》제4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 2002.